

(사)한기보험 정총, 이범성 대표회장 유임

상임회장에 박동호 목사 선임 등 임원진 개선



상단림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지난달 20일(목) 오전10시 30분 제29차 정기총회를 여전도회관 루이지안관에서 열고 대표회장에 이범성 목사를 유임, 상임회장에 박동호 목사선을입하는 등 임원을 개선했다.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는 영양이고, 영양이 대'라는 제목의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때는 계속해서 고병수 목사(기독교한국성경교회 감독)·정명규 목사(대한예수교 순결성회 총회장)가 '국가안정과 통일', '협의회 발전을 위해' 특별기도를 한 후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인사와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 상임고문 지왕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총회 회무처리는 회원참명, 선언, 회순통과 후 전 회의록 낭독을 비롯한 이사회 보고, 각 위원회 보고를 유인물로 받았다.

총회는 올해 사업 및 예산승인을 통과시킨 후 선거를 통해 이범성 목사를 유임시키고 나머지 임원과 각종 안건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후 증명대표회장 남성우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초대교회 분석 통한 한국교회 방향 제시

오는 24일, '액츠 컨퍼런스' 개최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을 통해 분석한 초대교회의 유형을 9가지로 분석,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액츠(Acts) 컨퍼런스'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구 연지동 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액츠 컨퍼런스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미래목회포럼(이사장 오정호 목사, 대표회장 고명진 목사)·(사)나눔과기쁨(상임대표 서경석 목사)·회선전교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박순오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성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번영의 신학과 세속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 대안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며 사도행전이 보여준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을 9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 △예수의 삶을 사는 소그룹 공동체 △기사가 계속되는 치유 공동체 △그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진도 공동체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순결 공동체 △주의 종의 동역자를 세우는 사역 공동체 △한나와 필박을 이기는 순교 공동체 △소외된 이웃을 품는 나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행사 후원기관인 미래목회포럼의 이호상 목사(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며, 사도행전을 통해 이 시대의 이상한 참 교회의 미래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이번 컨퍼런스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053)260-2600

홀사모와 그 자녀 16명에게 희망의 장학금 전달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



목회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홀사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 4년간 2억 8천여 만 원을 모금해 장학금을 전달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회장 김진호 감독)가 올해에도 홀사모 자녀 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진호 감독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시 다른 사랑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는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홀사모와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해 감독회장을 지낸 김진호 감독(도봉교회 원로)이 은퇴 후 새로운 사역으로 이 운동본부를 조직했다.

현재 이 운동본부는 김진호 감독을 위시해 박정민 목사(서산중앙교회 원로), 나원용 감독(종교교회 원로), 도건일 목사(서강교회 원로), 김용주 감독(경신교회 원로) 등 원로들이 힘을 보탤고, 권중호 목사(종교교회 담임), 최우성 목사(예은교회 담임), 김수일 목사(제일중앙교회 담임), 정진권 목사(삼양교회 담임), 박영민 목사(새길교회 담임) 등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에 동참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고혜령 학생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처가 많았지만 예수지팡이 사모션교회와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의 위로와 도움으로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른 친구를 위로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예전과 이장정 사모님과 목회자 유가족돕기운동본부 김진호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관악구청 교구 협의회 신년조찬기도회

관악구청 교구 협의회는 신년조찬기도회 및 관악경찰서장 부인환영예배를 겸하여 지난 2월18일 관악감리교회(이정석 목사)에서 갖고 34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김영길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드려진 1부 예배에는 김달수 목사(대표회장, 성약교회)의 기도에 이어 관악감리교회 성가대의 찬양과 관악경찰서장 부인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후 노성수 목사(총무)가 집전 488절 성경봉독한 후 박규갑 목사(관악교구협의회 대표회장)가 '희망을 주는 사람의 진정한 리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어서 특별

기도로 윤석봉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용환 목사가 '정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조준현 목사가 '구형장과 전 직원을 위하여', 김진신 목사가 '경찰서장과 전 직원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정석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박규갑 목사가 새로 부임한 김종보 경찰서장에게 환영패를 전달했으며 관악경찰서장, 유기홍 국회의원, 김희철 전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전한 뒤 양정섭 목사(지도위원)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총회는 김달수 목사가 의장이 되어

회장 인사말씀 전회의록 낭독, 사무총장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등을 유인물로 받고 신년도 사업안과 예산안을 통과한 후 임원선거를 했다.

모든 안건은 신임위원회에 위임 처리기로 하고 폐회했으며 새로 선임된 임원은 △대표회장 이정석 목사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사무총장 윤정규 목사 △총무 노성수 목사 △서기 임성은 목사 △부서기 최인광 목사 △회계 노성수 목사 △부회계 한혜광 목사 △감사 양정섭 김한성 목사 등이다.

한기총 임원회,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 등 전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달 24일(월)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5-1차 임원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참명 결과 28명 참석, 25명 위임으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31절 기념대회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연합(한교회)이 한기총의 고유 임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해 지난 2월 21일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질서확립대책위원장 정학재 목사와 총무협의회 회장 정준모 목사, 그리고 한기총 소속 교단 총무 이태우 목사 공제질의서를 발표하였음을 보고하였고, 3월 1일(토) 오후 2시 시정 서울광장에서 한기총과 이총협(예측단)총협의회, 상임대표 이상훈 전 장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순서 및 순서에 대한 것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임원은 각 교단 총무들을 중심으로 1만 명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미자립교회 보조지원의 건은 각 교단에서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미자립교회에 대해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상임, 특별위원회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였다.

회의 및 회원교단 관련 건은 이준원 목사가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거부부 사건과 관련하여 한기총을 유해한 김원남 목사와 박종선 목사 그리고 소속한 교단을 각각 영구제명 처리하기로 하였다.

201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기독교복음주의협의회와

MOU 체결의 건은 지난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특히 한국에 이슬람이 침투하지 못하고, 협조한다는 것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파송시 선교활동에서부터 포괄적인 신변보장을 인도네시아 기독교복음주의협의회가 한다는 것을 밝혔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이운용 목사가 기도하였고,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골로새서 2장 7-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중경회장 이만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지성과 영성 겸비한 신실한 주의 일꾼” 당부

칼빈대,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칼빈대학교(총장 김재연 박사)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달 20일(목) 칼빈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 대학원 6명, 신대원 103명, 대학교 10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에서 드려진 예배는 이사장 김진용 목사의 사회, 이사 박진국 목사의 기도, 감사 려용덕 목사의 성경봉독, 애장 합동 부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비술을 받은후 사다란 제목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학위수여식은 대학원장 김지호 교수의 학사보고에 이어 김재연 총장이 철학박사학위와 신학사학위, 목회학석사학위, 학사학위 등 학위를 수여하고, 성적 최우수상과 우등상, 졸업논문 우수상 등을 수여했다. 또한 김진용 이사장과 총동문회장 남재승 목사 등이 졸업생들에게 공로상과 봉사상 등

을 수여했다.

김재연 총장은 헌시를 통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면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에 때문에 앞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가



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강본석 목사(영남김윤준목사기념사업회 총재)와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가 축사, 서문강 목사(중심교회)와 김경원 목사(한국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가 격려사, 배리본 정지철 교수가 특송을 했다.

군선교 전문기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 창립

3월 7일(금) 오후 4시 국방부 육군관련 호국회에서 효과적인 군선교 전문기관인 미래군선교 네트워크가 창립된다.

미래군선교 네트워크는 한국교회와 군선교 대표성을 가진 한국기독교교단연합회와 연합하여, 군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대대급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군선교사의 사역활동 지원과 군인 신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신세대 장병 눈높이에 맞춘 신앙 세미나와 성경공부 교제 개발에 사역의 초점을 맞춘 군선교 전문 선교기관이다.

현재 한국교회 숫자는 6만여 개에 달하지만, 실제로 군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전체 가운데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래군선교 네트워크는 아직도 군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일깨워 군선교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민간 간의 소통을 위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군선교의 효과를 최대한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군선교 네트워크 초대 대표회장으로 는 법조전문직 직책을 받고 있는 김경원목사

(서현교회)가 취임하며, 군선교에 관심있는 일반교회 목회자들과 군선교 현장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현역과 예비역 군목, 군선교 민간교역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군선교는 타종교의 거센 도전과 학원선교의 쇠퇴로 선교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약 1000여 개의 군인교회 가운데 정병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70%의 대대급 교회가 활성화 된다면 군복음화 뿐만 아니라 민족복음화를 앞당기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한국기독교기정생활협회가 지난달 24일(월) 서울 연지동 기독교관에서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란 주제로 제69회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 이경호 신부(성공회)를 선출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회장 신재국

사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회복계획에는 창조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근심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50회기를 통해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거룩한 근심으로 둘러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정생활협회는 2014년 사업계획으로 오는 5월 22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69회 가정주간 행사'와 세계기정장년 6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과 10월 11일에는 '세계기정장년 60주년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15년도 가정에서 출판 보급과, 제3차 가정평화캠페인, 새기정생활협회를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기정평화캠페인은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각 회기별 주제에 맞춰 2010년에는 '다양한 가정, 함께하는 세상', 2011년 '자녀를 행복하게, 부모를 건강하게', 2012년 '젊은 그대, 당신이 희망이다', 2013년 '가정에 치유를, 이곳에 회복을'을 펼쳐오바 왔다.